

근본경험

‘깨어있기’와 오인회悟因會(깨어있기 참가자들의 후속 모임. 다양한 연습과 대화들이 이어진다) 공부를 통해 개념과 경험의 세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는 이들을 인터뷰했습니다.



개별적 자아는 허상이다(1부)

| 거위 | 오인회 편집부 인터뷰 |

울산에서 정형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거위 님은, 진리란 무엇인가 궁금해 하며 지내오던 중 마하라지의 책을 통해 중대한 변화를 겪었고, 연이어 찾아온 월인 님의 책을 인연으로 깨어있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의 프로그램, 그리고 이어진 오인회 화상 강의들을 통해 점차로 발생하는 안팎의 변화를 즐기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편집부(이하 편) 안녕하세요, 거위 님. 반갑습니다. 미내사클럽은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거위(이하 거) 이것저것 뒤져보다가 우연하게 월인 선생님 책을 접하게 됐어요. 책을 읽고 월인 선생님을 만나 뵙고 싶은 마음이 들어 인터넷에서 검색하다가 알게 됐습니다.

편 어떤 책을 보셨나요?

거 《관성을 넘어가기》였어요. 월인 선생님 말씀이 책으로 나온 것 중에 2권을 봤어요.

편 어린 시절은 어땠나요?

거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교리는 잘은 몰랐지만 교회에 가면 느낌이 좋았어요. 저희 집이 굉장히 종교적인 분위기였어요. 아버지께서 불교신자신데 어렸을 때 천주교 신자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엔 불교와 관련된 문화를 접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절을 지나가다가 탑을 봤어요. 지나가는데 느낌이 묘하더라고요. 그때 친구랑 밤늦게까지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종교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지만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편 그때가 언제였나요?

거 초등학교 1~2학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또 어느 날은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반감이 생겼어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천주교 신자셨지만 종교를 강요하진 않으셨어요. 돌아보면 제가 반골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게 어디 있냐’라고 따지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편 불교 경전이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으셨나요?

거 저는 역설적인 말을 좋아해요. 불교 경전은 역설적인 말이 많잖아요. 예불 드릴 때 읽는 반야심경도 역설적이고요.

편 대학교 때는 어떠셨나요?

거 학과 공부를 거의 하지 않고 여기저기 찾아다녔어요. 정형외과 전공이었는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힘들지는 않았어요. 마음만 괴로웠죠.

편 왜 마음이 괴로웠죠?

거 공부다운 공부는 안하고 커리큘럼을 따라가야 해서요. 그리고 의학



이라는 것의 근본적인 관점 자체가 굉장히 물질주의적이예요. 현대 의학에서는 의식이라는 것도 물질을 기반으로 형성된 거라고 이야기해요. 유물론에 바탕을 두고 있죠. 그런 관점 자체가 싫었어요.

편 의대 다닐 동안에 이쪽 분야 공부는 어떻게 하셨나요?
거 책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때 오쇼 라즈니시 책을 처음 봤죠.

편 혹시 기억에 남는 책이 있나요?
거 오쇼 책 중에 좋은 것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오쇼 책이 갈증을 많이 해소시켜줬어요. 제일 좋았던 건 달마 혈맥론이었고 한글과 한자가 같이 있는 경전, 선종 관련 내용, 어록들을 많이 봤어요.

편 달마 혈맥론이 좋으셨다고 했는데.
거 굉장히 좋았지만 그것도 돌아보면 스스로 경쟁심이 많아서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어떤 상황에서 무언가를 접했을 때, 관심은 가는데 잘 모르면 스스로 충족될 만큼 얕이 깊어질 때까지 파는 성향이 있었어요.

편 타인과의 경쟁심보다는 자기 자신과의 경쟁심인가요?
거 타인과의 경쟁심도 있죠. 고등학교 때 들었던 생각인데, 공부를 잘하는 편이었지만 ‘경쟁상대를 이기려고 공부하는 건 진리를 추구하는 자세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공부 자체가 재밌어서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죠. 그래도 다른 친구가 더 잘 하면 마음에서 경쟁심이 일어났는데,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스스로 창피했어요.

편 보통은 남과 비교해서 ‘지면 안 돼.’ 이런 경쟁심으로 공부를 하는데 다르셨군요.
거 남과의 경쟁심도 분명 있었지만 의식적으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알려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에서 이야기하기를 굉장히 강한 경쟁심을 갖고 있고 강력한 에고를 타고났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살면서 이기적으로 살지 않았거든요. 저는 제가 뭔가를 바라볼 때 어떤 결론을 가지고 그것이 어떤 쓸모가 있는지를 생각해요. 예를 들어 깨달음을 추구한다면 그 깨달음 추구가 어떤 쓸모가 있는지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 경향성을 보여주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실용적인 것을 추구했던 것 같아요. 어떤 쓸모가 있는지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입장에서 보는 거잖아요. 입장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되니까요. 이 공부를 하면서 경계가 점점 허물어져가고 그것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쓸모가 무언지 탐구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편 깨어있기 강좌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저 《관성을 넘어가기》를 읽고 월인 선생님을 꼭 뵙고 싶었어요.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이 될 만한 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알고 지내는 어떤 스님에게는 좋은 스승이 계셨는데 그것이 참 부러웠어요. 그 스님에게 나도 스승을 갖고 싶다고 했더니 스님이 ‘네가 준비되면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실망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때 내가 스승을 만나지 못하는 대신,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책은 내 손에 쥐어진다는 신념이 있었어요. 그런 우연함, 동시성 경험을 무척 많이 했거든요. 머릿속에 의문이 있어서 우연히 서점에서 책을 집었는데 그 책이 그 시기의 의문과 관련된 책이었던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그러면서 책을 스승으로 삼는다 생각하고 공부를 했었죠. 그러다 월인 선생님 책을 보고 깨어있기 워크숍에



참가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깨어있기 프로그램을 신청한 시기에 월인 선생님이 함양 연수원에 안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기에 ‘이분한테 가서 점검을 받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뵙지는 못했죠.

편 책을 스승 삼아 공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거 의문이 나면 관련된 책을 다 뒤졌어요. 선종 쪽의 책을 보다가 라즈니시로 넘어갔다가 힌두교 책을 봤다가, 몸으로 하는 걸 해야 할 것 같아서 기공도 배우고 요가도 배웠죠.

편 어떤 의문을 가지고 계셨나요?

거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20년 걸려서 깨달았다고 했는데 나는 그것보다 더 빨리 깨달아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경전이나 책을 무척 열심히 봤죠. 그때 3~4년을 봤는데 결론은 ‘나는 깨달을 수 없다’였어요. 냉철하게 사유해보니까 말을 가지고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게 너무 확연하더라고요. 그래서 라즈니쉬는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오직 은총으로밖에 안 된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내가 내 에고를 가지고 깨달을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읽고 그때 강의를 하셨던 스님에게 가져가서 질문을 했어요. ‘나는 진짜 똑똑한 사람인데, 책을 여러 번 읽고 다 종합해서 결론을 내보니, 이건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것은 다 사기 아니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것을 옛날 사람들은 백척간두라고 이야기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봐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때가 30대 초반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놀았어요. 왜냐하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무슨 내용인지 다 알겠고, 스님이 말하는 내용도 다 뻔한데 어쨌든 불가능한 것을 왜 저렇게 이야기하지?’라고 생각하면서

귀담아듣지 않았어요. 어쩌다 관련 내용을 듣게 되면 ‘아, 그래, 저런 내용이지’, ‘다 아는데 어차피 나는 못 깨달아’라고 생각해서 다른 짓을 많이 했어요. 공부를 거의 놓은 거죠. 그런데 40대 들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인생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편 계속 의사생활을 하시지 않았나요?

거 네. 그런데 40대 들어서 후배 한 명이 남쪽에서 병원을 지어서 같이 해보자고 제안을 해왔어요. 거기에 투자했다가 잘 안 돼서 재정적으로 심하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마음고생도 많이 했죠.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이 다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이론적으로만 공부하다가 실전을 경험한 거죠. 그 시기에 마하리쉬와 마하라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 분들 책을 읽으면서 많은 것들이 정리되었어요. 마하라지의 《담배가게의 성자》라는 책에 ‘나’라는 게 없다는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나 쉽게 나오더라고요.

편 그런 이야기는 라즈니쉬나 다른 책에도 나오지 않았나요?

거 분명히 그랬을 텐데 그때는 마음에 와 닿지 않은 거죠. 그런데 40대 초반에 다양한 경험을 하고 난 뒤에 마하라지의 책을 읽으니 그 말이 마음에 꽂힌 거죠. 그래서 한 달간 그냥 그 말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 그 동안 마음속에 깊게 품어 왔었던 선문답적인 이야기들, 빈 배 이야기 등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밝아지더라고요.

편 어떤 식으로 밝아졌나요?

거 이런 표현이 떠올랐어요. ‘개별적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허상이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막혔던 부분에 대입해보니 다 풀리더라고요. ‘아, 이거였구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에고를 가지고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에고가 없어진 상태를



추구하는 거였으니까요. 그 이후로 한 달 정도 허무감이 강하게 왔어요. 멍해지더라고요.

편 그 동안 나름대로 책을 많이 읽으시면서 결론을 내린 것이 ‘나는 절대 못 깨닫는다’라는 것이었고 이것을 스님에게도 물어봤을 때 백척간두라고 말씀했다고 하셨죠? 그리고 40대에 인생의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마하라지의 ‘나라는 게 없다.’는 문장을 읽고 화두를 품게 되고 ‘개별적인 자아는 허상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스님에게 물어봤을 때나, 마하라쉬나 마하라지의 책을 읽고 고민한 결과 ‘나라는 것은 허상이다’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나 결론은 비슷했는데, 어떤 점이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나요? 똑같이 앞의 결론은 ‘에고는 깨달을 수 없다’고, 뒤의 결론은 ‘개별적인 자아는 허상이다’인데 이때도 결론은 ‘나는 깨달을 수 없다’ 아닌가요? 거 말은 다 동일하죠. 이런 것이예요. 월인 선생님께서 안내해주는 것도 보면, 감지연습을 하고, 그 후 내면을 지켜보는 연습을 하고, 생각을 떨어져서 보게 되고, ‘나’라는 것의 느낌에서 벗어나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이 조합 자체는 특별하지만, 요소요소에 있는 테크닉적인 것들은 어느 전통에나 있는 굉장히 오래된 것들일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 ‘나’라는 느낌을 다루기 이전까지는 매 연습마다 ‘지켜보는 자아’가 계속 있어요. 그리고 ‘지켜보려는 의도’가 내면에 항상 분리되어 있고요. 즉, 어떤 의도를 가진 ‘에고’는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잘 관찰해 보면 ‘그런 의도를 낼 때’만 그런 ‘에고’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으로 ‘알려고’ 하면 그때는 계속 에고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으면 거기

에 예고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예고는 항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편 전에 스님에게 물었을 때는 나라는 것의 중심이 존재한다고 여긴
‘예고’에 가 있는 상태였고, 나중에 마하리쉬 책을 읽고 결론내릴 때
는 그런 의식의 쏠림인 중심, 나라는 어떤 초점 자체가 허상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는 건가요?

거 네. 동일시였다는 것이죠.

편 동일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여러 거창한 말들을 들으
면 다 말장난인 것 같아요. 깨달음이라는 상태, 깨달은 자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되게 말장난 같은 거죠.

월인 선생님 책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떤 면에서 끌렸냐면, 선생님
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다 읽어 보니 첫 번째로 이 분은 소위 깨
달은 분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두 번째는 책에 아주 짧게나마 본
인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느낌이 저와 궁합이 잘 맞는다
는 느낌이 들었어요. 책을 읽다보면 글에서 글쓴이의 성향이 느껴
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분께 가서 한번 물어봐야겠다, 내가 이해
하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지금까지 내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편 아까 마하리쉬 책을 읽고 나서 내린 결론을 확인하기 위해 월인 님
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지금은 안 계신다는 대
답을 들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기다리셨나요?

거 아니요. 선생님이 안 계시는 것과 관계없이 교육은 하고 있어서 성
지 님이 진행하시는 교육을 받았어요. 내용 자체는 제가 접해보지
않았던 내용들이 꽤 많아서 상당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중에 성지 님이 계속 자극을 주거든요. 이런 저런 말로 저를 흔드는 거죠. 일부러 그러시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편 어떤 경험을 하셨어요?

거 일단은 성지 님에게 죄송한데, 성지 님이 저에 비해서 젊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고 과연 저 사람이 자격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젊으니까요. 그래서 약간 색안경을 끼고 봤어요. 그런데 교육 중에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쿡쿡 찌르시는데 그러면서 제 예고가 건드려지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화도 났구요. ‘저 사람 진짜 깨달은 사람 맞아? 비슷하게 이야기하면서 앵무새처럼 월인 선생님 말씀 따라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요. 물론 지금은 제가 월인 선생님뿐만 아니라 성지 선생님도 너무 좋아해요. 그때 저를 찢어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어쨌든 처음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워크숍이 2박 3일밖에 안되잖아요. 둘째 날 오후, 셋째 날 아침이 되면서부터 성지 선생님이 너무 좋더라고요. 참 좋았어요. 첫날 제가 굉장히 반감이 있었는데, 2박 3일간 프로그램을 잘 끝마쳤고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편 깨어있기 강좌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나 통찰이 있나요?

거 디테일적인 면에서 새로웠어요. 보통 교육 자료들 보면 약간 심리학 쪽에서 나오는 자료들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깨어있기에선 시각적인 착각효과처럼 경험적인 것을 보여주며 설명하는데 그런 것들이 새로웠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해왔던 공부와 겹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사실은 어딜 가나 겹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냥 복습하는 느낌으로 들었고, 새롭게 배운 감지연습이라든

지,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었죠.

편 감지는 파악되나요?

거 잘 되는 편이에요.

편 깨어있기 강좌를 듣고 난 이후에도 연습을 꾸준히 하셨나요?

거 감지연습은 했어요. 제가 스스로 비워지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 주역강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역강의를 깨어있기 심화까지 이수한 사람만 들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전화해서 ‘내가 아직 심화까지는 이수하지 않았는데, 곧 들을 예정이니 강좌를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참가를 했었어요.

편 생각과 감지, 감각상태가 명확히 구별되세요?

거 네. 그냥 다름을 아는 것이고, 그것에 어떤 감각이나 판단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르다는 것을 아는 거죠.

편 그것이 감지고, 생각은요?

거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뭔가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생각의 지도가. 편 그러면 감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거 경험적으로 보면 생각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떠오르는 거 같아요. 그래서 감지나 감각이 잘되면 쓸데없는 생각에서 효율적으로 벗어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일상에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편 어째서 그렇지요?

거 감지는 일상에서 계속 느껴지는데, 거기에 이름이 붙어 파생되는 생각이 떠오르면, 보통은 거기에 풍당 빠져들어 그것을 계속 진행시켜요. 하지만 감지가 되면 진행되는 초기에 그 생각을 끊어 버릴 수



- 가 있죠. 필요 없는 생각이라면 말이에요. 그래서 감지연습을 하면
담백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 편 생각이라는 것은 감지를 기반으로 해서 떠오르는 어떤 우연적인 현
상으로 파악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니기에 떨쳐
버릴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거 네, 주의를 돌리면 되죠.
- 편 그것이 100퍼센트 되시나요?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있으신가요?
- 거 점점 하다보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 부정적인 것은 더 잘 안되
거든요.
- 편 부정적인 생각은 떨치기 힘든가요?
- 거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것은 억지로 끊어내기가 더 힘들
죠. 그런데 연습을 하다 보면 점점 잘돼요.
- 편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 거 그냥 생각을 돌리는 거예요. 감지 차원에서 보면 모든 이야기들이
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허상이죠.
- 편 허상이라는 것을 철저히 파악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힘을 잃어버린
다는 말씀이신가요?
- 거 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편 그렇다면 감지연습을 많이 하셨겠네요? 월인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도 책을 통해 공부를 많이 하셨지만, 깨어있기 수업을 듣고 난 후에
탐구가 더 정확하게 이루어진 건가요?
- 거 네, 더 체계적이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 편 깨어있기 수업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이 걸려있었던 어떤 생각들이
수업 후에 풀려난 경험 같은 것이 있을까요?
- 거 제가 빛이 126억 정도 있었어요. 그 와중에도 생각해보면 먹고 사

는 데에는 크게 지장 없었지만, 126억이라는 제가 본 적도 없는, 그냥 개념적인 그 생각이 어깨를 짓눌렀어요. 어깨가 계속 아프고 목이 딱딱했어요.

편 실제로 그러신 건가요?

거 네, 실제로 그랬어요. 몇 달 동안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굉장히 감명 깊게 본 책이 바이런 케이티의 《네 가지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거울 앞에 섰어요. 그 사람 테크닉은 이런 거예요. 먼저 어떤 상황에 대해 스스로에게 ‘그것이 사실이야?’고 물어봐요. 저에겐 126억의 빛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전엔 몰랐었는데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을 보는데 항상 고민이 많아서 그랬는지 얼굴 표정이 찌푸려져 있었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런 자신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 126억의 빛이 있고, 가정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고, 온갖 고민이 다 있다’고 한 다음에 ‘이게 사실인가?’라고 몇 번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잘 따져보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지금 이 순간 문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짐을 들고 다니는 거고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그렇게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는데 표정이 펴지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어깨가 똑바로 펴지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소위 깨달았다고 하신 분들은 이런 표현을 해요. 예고가 허상임을 완전히 체득하고, 예고가 떨쳐지는 순간 자신이 예고를 짊어지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월인 선생님은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망치가 쓸모 있어서 이거 좋네, 하면서 필요 없을 때에도 무의식적으로 그 망치를 24시간 들고 다닌다고요. 그런데 망치를 내려놓았을 때에야 지금까지 자신이 망치



를 들고 다녔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126억이라는 개념과 생각을 24시간 짊어지고 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움츠러져 있었던 어깨가 펴지고 그때부터 어깨가 아프지 않았어요.

편 그렇다면 거위 님은 자신이 가진 신념이나 믿음이 전부 파악되는지요?

거 네, 파악이 되죠.

편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거 나에게 필요한 책은 언제든 내 손에 쥐어진다.

편 그것이 하나의 믿음이라는 거죠?

거 믿음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하나의 도구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파악이 되면 도구잖아요?

편 무엇에 필요한 도구인가요?

거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인도해주는 도구죠.

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어요?

거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창조주가 이 세상을 만들어낸 목적이 뭘까요? 저는 목적이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어떤 목적이든 가능하다는 이야기와 똑같아요. 우리가 개별적 존재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가장 큰 이유가 경험을 하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놀기 위해서인데, 경험 자체가 노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놀고 싶다는 전체적인 세팅과 환경을 설정해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지요.(다음 호에 계속)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